

비 개인 오후



김 동 정

오전 내내 가랑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오후 두시 무렵, 말끔히 개었다.

비 개인 오후의 깨끗한 거리를 보니 마음이 맑게 행귀지는 느낌이 다. 동쪽으로 밀려가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

복한다. 저만큼 높다란 건물의 청색유리창이 햇살에 반사되어 온 빛을 튕겨내고 있다. 음침하게 가라앉았던 도시 색깔이 레이스 커튼을 드리운듯 옷을 갈아 입었다. 변화무쌍한 자연이 빔어놓은 아름다움이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인다. 굶은 날씨가 견힌 뒤의 새로움 내지 다사로움.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저쪽 풍경에 눈길을 주노라니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차오른다.

감상주의자가 된 기분일까? 이렇듯 비 개인 뒤의 도시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서정을 불러일으킨다. 막 목욕을 끝낸 뒤의 상쾌함이랄까?

올해도 절반을 지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다. 여름을 넘어 가

을 또 겨울. 시간이란 너무도 허망한 그러나 소중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으리라.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운다. 봄날의 열정, 여름날의 바닷가 추억을 지나 지금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고 있다. 그리고 보면 소리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란 존재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심오하다. 어느 누구라도 시간 앞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순간 순간이 모여 세월을 더해가고 존재의 힘을 잃어버린 무수한 것들은 세월속에 파묻혀 흔적없이 사라진다. 아니,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는 것일 게다. 자연순환의 법칙,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의 수레바퀴는 쉽없이 돌아가고 문명은 새로운 창출한다.

비 개인 오후의 거리를 마냥 걷고 싶다. 사람들이 복작대는 도시의 한복판도 좋고 고요가 흐르는 시골길이면 더 좋지 않을까?

고향의 둔덕이 떠오른다. 무시로 뇌리에 나타났다 스러지곤 하는 그 터!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지만 고향의 산과 들과 바다를 떠올리면 마음이 순수해진다. 향수병이다. 거친 마음을 고요히 잠재우는 향수병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정신적 자양분이다.

풀잎에 맺힌 청초한 이슬처럼, 햇살에 웃음짓는 가을꽃처럼 맑고 새뜻하게 살아가고픈 염원. 돌 구름 솔 바람의 참된 의미를 가슴속에 품은 채 살아가는 마음 너넉함이 언제까지나 이어졌으면 싶다.

흰구름이 햇살을 등에 지고 제 갈길을 가는 가을날의 오후. 어디선가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온다. 비 개인 뒤의 도시 풍경이 물속에서 마약 빠져나온 아이처럼 청순하고 환하다. ●